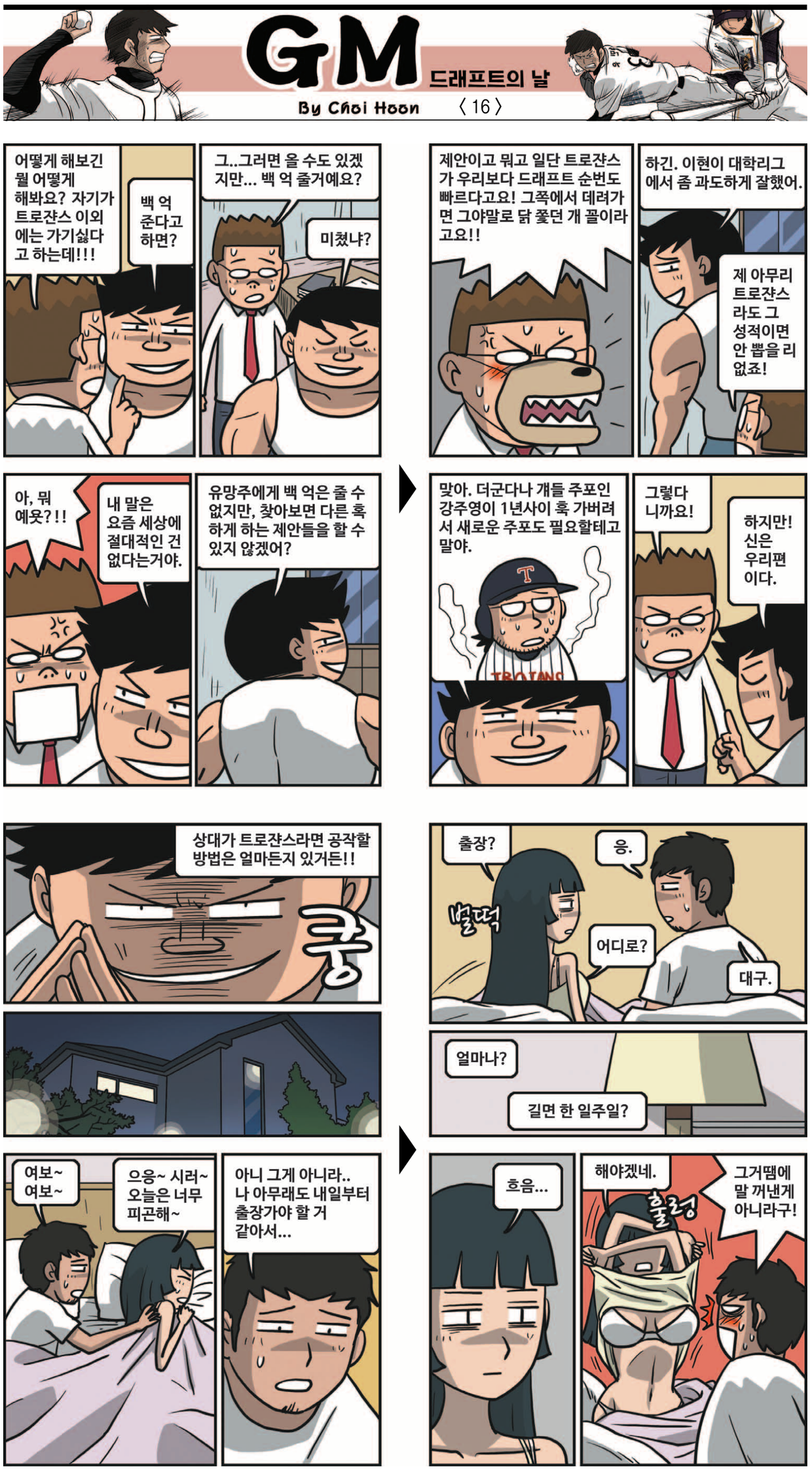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음악 & 전시

바이올린 전설 기돈 크레머, 22년 만의 리사이틀

●기돈 크레머&뤼카 드바르그 리사이틀 | 6월 12일 오후 5시 |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살아있는 바이올린의 전설 기돈 크레머(사진 왼쪽)가 돌아온다. 1994년 마르타 아르헤리치와의 협연 이후 22년 만의 리사이틀이다. 이번 공연은 그간 오케스트라 협연으로만 내한했던 기돈 크레머의 단독 리사이틀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2015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입상자인 피아니스트 뤼카 드바르그(오른쪽)와 함께 무대에 선다. 상하이 콘서트홀, 서울 예술의전당, 도쿄 산토리홀 등 세계 명문 콘서트홀을 순회하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이기도 하다.

1부는 두 아티스트의 솔로 무대로 꾸며진다. 기돈 크레머는 '바인베르그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3번'을, 뤼카 드바르그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7번 D장조'를 연주한다. 2부에서는 듀오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와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를 연주한다.

제주에 가면 도라에몽과 4차원 비밀도구가 있다

●도라에몽 100 비밀도구전 | 10월 30일까지 | 제주 미니랜드 특별전시장

인기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을 내세운 '도라에몽 100 비밀도구전'(사진)은 2012년 홍콩에서 처음 시작돼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제주 도라에몽 100 비밀도구전'은 도라에몽에 관한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소개하는 한편 도라에몽 만화를 볼 수 있는 만화방, 진구의 방을 재현한 포토존, 비밀도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포토전으로 마련됐다.

하이라이트인 100체의 도라에몽은 약 400여 평의 야외 공간에 자리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대나무 헬리콥터', 암기하고 싶은 것을 찍어서 먹으면 무엇이든 술술 외울 수 있는 '암기빵', 어떠한 사물이든 덮으면 새롭게 혹은 낡게 만들 수 있는 '타임 보자기' 등 친숙한 비밀도구를 들고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한 도라에몽을 만날 수 있다.

도라에몽은 22세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고양이형 로봇이다. 배에 달린 4차원 주머니에서 신기한 비밀도구를 꺼내 진구를 돕는다는 줄거리의 만화이자 애니메이션이다. 귀여운 외모와 재미있는 비밀도구 이야기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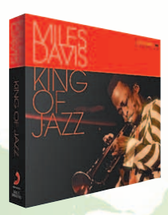
에네스 콰르텟이 연주하는 풍성한 '현의 만찬'

●에네스 콰르텟,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연주 | 6월 25일~7월 3일 | 서울 예술의전당 IBK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월간지 '스트링스'가 '드림팀 라인업'으로 극찬한 에네스 콰르텟이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을 4일간, 6회에 걸쳐 연주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 '하이페츠의 재래' 등 최고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와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에이미 슈워츠 모레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첼리스트 로버트 드메인이 에네스 콰르텟을 구성하고 있다. 한 단체가 보통 1~2년에 걸쳐 연주하는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을 한꺼번에 연주하는 것은 세계 음악계에서도 보기 드문 도전이다. 에네스 콰르텟은 2010년에 결성돼 세심하면서도 풍부한 표현력으로 북미와 유럽 클래식 음악팬들을 열광시켜 온 단체이다. 2014년에는 바버와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작품을 수록한 데뷔음반이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 새 음반

●킹 오브 재즈 | 소니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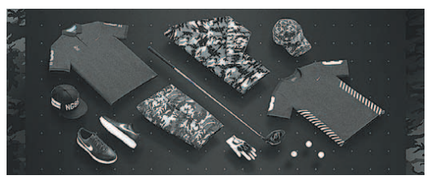
재즈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마일스 데이비스가 올해 탄생 90주년을 맞이했다. '킹 오브 재즈(King of Jazz)'는 재즈의 왕 마일스 데이비스의 업적을 되돌아보기 위한 베스트 앨범이다. 음악적 아이디어가 분출되던 콜롬비아 레코드 시절의 앨범 중 주요 타이틀 24장을 선정한 후 각 앨범에서 대표곡 1곡씩을 뽑아 시대 순으로 석 장의 CD에 수록했다.

1926년 미국 일리노이에서 태어나 13세에 처음 트럼펫 연주를 시작한 마일스 데이비스는 줄리어드 음대 입학을 위해 뉴욕에 갔다가 우상이었던 찰리 파커와 협연하면서 재즈에 발을 디뎠다. 이후 마일스 데이비스는 음악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쿨재즈', '하드밥', '모달재즈', '퓨전재즈' 등을 개척하며 재즈의 경계를 확장해 나갔다. 재즈마니아는 물론 이제 막 재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심자에게도 추천할 만한 음반이다.

뉴스디자인 | 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

Biz gallery

나이키골프, 30주년 기념 컬렉션 선봬



나이키골프는 골프웨어 론칭 30주년을 기념해 '나이키골프클럽 컬렉션:스테이 히든, 비 씬(STAY HIDDEN, BE SEEN·사진)'을 출시한다.

1986년 골프웨어 첫 출시를 기념해 제작된 컬렉션으로 나이키의 숨겨진 히스토리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어 미래지향적인 골프룩으로 탄생했다. 나이키 특유의 사선 패턴을 감각적으로 배치하고 카모플라주 프린트에 반사 패턴의 디테일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후드 재킷과 라운드 티셔츠, 레거시 캡, 워시드 폴로와 워시드 쇼츠 등으로 구성됐다. 뛰어난 필드 퍼포먼스와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웨어를 추구한다.

평생교육원, 통합논술지도사 과정 개강

어린이 창의력과 교과 통합 독서논술토론 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 교구재 전문기업인 ㈜와이즈교육(대표 황규동) 부설 한국통합원격평생교육원이 4개월 과정의 통합논술지도사 자격증 취득반을 9일 개강한다.

강의당 평균 20분, 총 40강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된 이 과정은 '통합논술의 기본 이해(강의 황규동)'를 시작으로 '통합논술 개론(한철우)', '미국의 글쓰기 교육과 글쓰기 방법론(고한석)', 'NIE와 독서논술(윤희경)'에 이어 첨삭과 실전테스트로 짜여졌다.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동영상 중심의 수업을 편리한 시간에 다운받아 학습하면 된다. 수강기간 동안 동영상 강의 열람은 횟수 제한이 없으며 수강 후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2개월 간 무료로 추가 수강이 가능하다. 동영상 청취율이 90%를 넘으면 수료로 인정해 별도의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와이즈교육 황규동 대표는 "통합논술지도사는 학생들의 창의적 논지 설정과 사고, 간결 명확한 글쓰기 능력 등을 끌어올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교육과 입시제도가 갈수록 선진국 형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들의 역할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 '리세스 맥플러리' 한정 판매

맥도날드에서 인기 디저트 메뉴인 '맥플러리'와 허쉬의 대표 브랜드 '리세스 초콜릿'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리세스 맥플러리'(사진)를 출시하고 6월 23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리세스 맥플러리는 아이스크림 디저트 메뉴인 맥플러리에 미국 내 판매 1위를 자랑하는 리세스 초콜릿이 더해져 탄생했다. 맥플러리가 선사하는 부드러운 우유 아이스크림의 풍미에, 고소한 땅콩버터와 달콤한 밀크 초콜릿이 만난 리세스 초콜릿이 어우러져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

배스킨라빈스,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2' 출시

배스킨라빈스가 5월 이달의 맛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2'(사진)를 선보인다.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 받았던 인기 플레이버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제품이다. 부드러움이 가득 느껴지는 무스 타입의 솜사탕 맛 아이스크림에 달콤하게 코팅된 바삭한 라이스 크런치가 들어있어 더욱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볼빅, 서문여고 골프부 후원

국산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이 골프 유망주 육성을 위해 서문여자고등학교와 후원 협약식(사진)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문여고는 골프 명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희원을 비롯해 김하늘, 김자영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볼빅은 후원 협약을 통해 서문여고 골프 감독과 선수들에게 골프공, 모자, 캐디백 등의 골프용품을 지원한다.

볼빅은 이외에도 150여 명의 유소년 골프선수를 후원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